

‘활색조’ 되어 ... 극단 푸른연극마을, 10년만에 컴백

우리네 삶 칼위에서 춤을 추네

극장 ‘THEATER 연바람’ 오픈 극단 ‘골목길’·탱고 그룹 ‘돌체’ 등 내달까지 개관기념 페스티벌 다채

극단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이 다시 극장을 오픈했다. 광주를 떠난 지 꼭 10년만이다. ‘THEATER 연바람’은 광주시 동구 동명동 옛 인재갤러리 자리, 그 때 그 곳에 문을 열었다. 당시 지하에 있던 극장은 1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객석은 150석으로 늘었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넓직한 로비도 마련했다.

예전 극장이 푸른연극마을 작품을 공연하는 연극 전용이었던 반해 이 번에 문을 연 공간은 연극을 중심으로, 춤, 음악, 국악, 창극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고, 실험적인 작품을 올리는 복합공간으로 변모했다. 최근 동명동 일대는 갤러리 등을 갖춘 카페와 문화 공간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새로운 문화아지트로 각광 받고 있다. ‘THEATER 연바람’이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동명동에 푸른연극마을이 오픈한 ‘THEATER 연바람’

으로 박해일·윤재문·고수희 등 연기파 배우들을 대거 발굴해 낸 단체로 유명하다. 박근형의 신작 ‘하늘은 위에서 한달간 다양한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민간 극단이 준비한 개관 공연으로는 규모가 방대하다. 20년 넘게 다양한 단체들과 교류해 온 내공이 발휘되는 대목이다. 광주·전남 뿐 아니라 서울, 대구, 전북 등에서 예술인들이 참여했고 연극, 창극, 춤, 음악회 등 장르도 다양하다. 눈에 띄는 작품은 29~30일 공연되는 극단 ‘골목길’의 ‘하늘은 위에서 동동 태양을 들고’다. 현재 가장 주목 받는 연출가인 박근형이 이끄는 ‘골목길’은 ‘청춘예찬’,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낸 극단

하게 들여다본 작품이다. 다양한 음악 공연도 눈에 띈다. 호남신학대 실용음악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퓨전 재즈 그룹 ‘Travels’의 ‘재즈, 여행과 마음 통하다’(5월8일), 목포에서 활동하는 탱고 그룹 ‘돌체’의 ‘탱고, 그 뜨거운 사랑 꽃가마 여행’(5월 2~3일)은 박각의씨가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이승과 저승, 꿈과 현실을 오고가는 꼭두각시와 유럽을 여행하다’(5월14일) 등이다.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부토 공연도 무대에 오른다. 일본에서 시작한 후 극단의 고정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작품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주인공 호야와 주변인들의 삶을 따뜻

씨 ‘부토 아리랑’(16일)을 선보인다. 광주여대 박선옥 교수가 이끄는 박선옥돌움무용단의 ‘몸을 봄’(5월 17일)도 기대되는 무대다. 개관 기념 공연의 피날레 무대는 푸른연극마을이 장시한다. 푸른연극마을이 지난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무대에 올렸던 ‘2014, 맥베스’(5월23일~31일)다. 극단 대표 오성완이 연출을 맡았다. 공연 시간 평일 오후 7시30분, 공휴일·토·일요일 오후 5시, 티켓 가격 1편 2만 5000원, 2편 3만 5000원, 3편 이상 4만원. cafe.daum.net/pyj2030. 문의 062-226-2446. 010-6610-05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HEATER 연바람’ 개관 페스티벌

날짜	작품 제목	공연 팀
4월 29-30	하늘은 위에 동동 태양을 들고	극단 골목길
2-3	꼭두랑 꽃가마여행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
5-6	호야, 내새끼	극단 한울림
8	재즈, 여행과 마음 통하다	퓨전재즈 TRAVELS
10	탱고, 그 뜨거운 사랑	DOLCE
13	흔들리는 꽃잎, 당신	달팽이들의 포럼콘서트
14	봄, 시와 유럽을 여행하다	바리톤 이호민
16	부토 아리랑	부토예술가 서승아
17	몸을 봄	박선옥돌움무용단
23~31	2014, 맥베스	극단 푸른연극마을



이종만 바이올린 독주회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이종만 바이올린 독주회 ‘앤스 언 더 바이올린’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생상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하바네이즈 작품 83’, 비탈리의 ‘사냥는 G단조’, 비에나프스키의 ‘콘체르트 폴로네이즈 1번 D장조’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전남대 작곡과 환경전 교수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퍼커션을 위한 ‘Sound and Motion’,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바흐 주제에 의한 주제와 변주’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영국왕립음대, 아헨국립음대, 로스톡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독일 하젠시립극장 악장을 역임했다. 에라토양상을 뽀뽀로 활동중이며 오는 9월 체코 모라비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스페타나를 합연 데뷔를 앞두고 있다. 피아니스트 박재현(조선대 교수)씨가 반주를 맡았으며 타악기 주자 이현동(광주시립교향악단원), 광주시립무용단 주역무용수 강병창·구윤지씨가 함께 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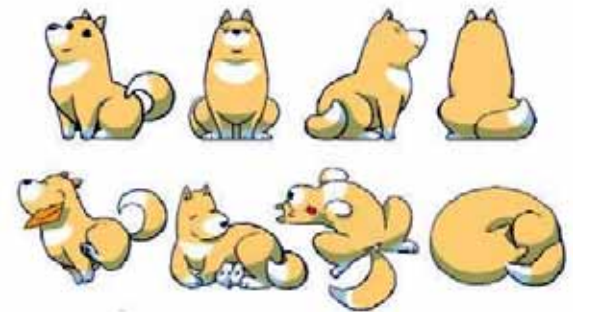
5·18이 꽃피운 문화예술 되짚는다

예향 5월호 ... ‘훈남’ 세프·윤구병 인터뷰 등 입을거리 다채

올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4주년을 맞는다. 광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잇는 한편 광주에서는 독특한 저항문화가 꽃피는 계기가 됐다. 군부의 억압과 통제를 뚫고 현실을 고발하는 민중 미술과 문학, 오월극이 뿌리내린 것이다. 광주일보에서 발행한 문화예술 전문매거진 ‘예향’ 5월호에서는 5·18 34주년 기념특집으로 미술, 문학, 공연예술 등 5월 문화예술의 장구한 흐름을 짚어보고 문화 자산으로 활용 가능성을 고민했다. 최근 접미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재생’은 이번호부터 기획 연재물로 다뤄진다.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에서는 ‘미술프로젝트’가 만든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부산 감천마을을 구석구석을



돌아왔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도서출판보리’의 대표이자 전북 번산에서 ‘번산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농부 철학자 윤구병(71) 선생을 만날 수 있다. 작곡가 김현옥씨는 ‘이달의 아티스트’ 초대손님이다. 2014 동아시안문화도시 광주 개막행사 음악감독을 맡았던 그는 고유한 예술들을 음악의 어법으로 풀어내는 창작세계를 펼치고 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역사가 이덕일씨는 ‘미주없는 책과 사람’에서 현실 정치와 정책들을 독특한 역사적 시각을 바탕으로 새롭게 읽어준다.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역사와 문화도시로 꼽히는 나주의 멋과 맛을 조명했고 ‘스타데이트’에서는 TV드라마 ‘쓰리데이즈’의 주연배우 박유천(한태경 분)을 만났다. /윤영기자 penfoot@



400년전 양림동 충견 문화상품으로 재탄생

캐릭터 ‘개비’ 제작 ... 책, 인형상품 등 활용

400년 전 광주 양림동에 살던 선비 정엄이 기르던 충견이 캐릭터 ‘개비(GAEBI)’로 재탄생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 기획창작스튜디오 입주 기업인 괴쉬하이커(대표 이은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지역진흥소재캐릭터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캐릭터 ‘Messenger Dog 개비(GAEBI)’는 지역문화원형 소재를 활용해 새롭게 창작한 콘텐츠다. 정엄이 기르던 개는 조정까지 문서수발을 다닐 정도로 영특한 개였다. 한양에 다녀오던 중 새끼 9마리를 출산하게 된 개는 새끼들을 한 마리씩 집으로 물어 나르다 죽고 말았다. 이후 정엄은 충직한 자신의 개를 위해 비석을 세웠고 양림동에는 400년 전 이야기와 비석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개비’는 우선 동화책으로 제작되며 애니메이션, 웹툰 등으로도 만들어진다. 또 지역 공예작가들과 연계해 목각인형, 가방 등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며 우표, 우체통 등을 제작해 길안내 캐릭터로도 활용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